

세월호법·청문회 증인 재협상론 확산

새정치 “김기춘 채택 불가엔 합의 자체 재고하겠다”

새누리 “이미 협상 끝나”...청문회 일정 표류 가능성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국회 정상화’를 합의했지만 야권 내부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세 13일 본회의 개최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재협상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절충안으로 내세웠던 아담이나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 추천권을 관철하지 못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6월 발표된 상설특검법 절차를 무시하고 진상조사위나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내에서 재협상 압박을 받는 새정치연합 유운근 정책위의장은 협상 카운터파트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이날 접촉에 나설 예정이지만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된다.

또한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을 비롯한 3~4개 쟁점 사항에 대해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과 관련, 새누리당은 기본 1년에 필요시 6개월을 연장하는 ‘12+6’ 방안을, 새정치연합은 기본 1년에 필요시 1년을 추가하는 ‘12+12’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의총을 앞두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다시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나머지 쟁점에서 최대한 새누리당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완강한 태도여서 여야 간의 후속 협상이 난관에 봉착, 세월호 특별법의 1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월호 국조특위의 청문회 증인 협상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10일 오후 6시부터 접촉을 갖고 증인문제에 대한 막

바지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전 안전행정부 장관)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확고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협상은 패키지”라며 증인 채택에서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세월호 정국 정상화에 대한 합의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오는 18~21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세월호 국조 특위 청문회가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부모들의 심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가족대책위와 면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 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반대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계속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통일대박론’ 구체화 할까

8·15 광복절 앞두고 對北메시지 주목

日엔 ‘과거사 직시·진정성 조치’ 촉구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맞는 8.15 광복절에 내용을 대일·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후 최근 2기 내각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꼭 막힌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용을 대북·대일 메시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권 내부에선 최근 통일준비위원을 본격 가동하며 ‘통일대박론’의 구체화에 나선 박 대통령이 해방 70년을 한해 앞둔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진행된 대북 메시지, 나아가 ‘대북 제언’을 내용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대일관계에 관한 메시지는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 다만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직시하며 그 가시적 첫걸음이 ‘위안부 문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들려 지

적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 전망이다.

우선 대북 메시지의 경우 최근의 흐름을 감안하면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최근 한반도 주변의 대외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유화 공세를 펼치고 있고, 14~18일 방한하는 프란시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남북한에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내용은 메시지에서도 일정부분 변화가 엿보였다.

반면, 대일 메시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원칙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담은 메시지를 염두에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그 순위와 내용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지명직 최고위원 ‘친이계’ 나경원 의원 거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조만간 당직 인선을 완료할 방침인 가운데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나경원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단 최고위원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TK출신 중진에 배정하는 방안도 여전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의 의중이 당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을 발탁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후문이

다. 이에 따라 지난 7·30 재보선 때 서울 동작 을에서 당선, 새누리당 압승에 기여한 나경원 의원의 지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나 의원이 여성성, 3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일각에서는 나 의원이 친이(친 이명박) 계열이라는 점에서 김 대표가 차기 대권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윤일병 사건’...軍인권법 처리 탄력불나

부당행위 감시 등 관련법안 주목

‘윤모 일병 사건’을 계기로 장병 인권 개선이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중에는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이 눈에 띈다. 국회에 ‘군사음부

즈만’을 두고 군인이 제기한 진정이나 국회 국방위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부대방문권과 정보접근권, 또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개선 권고권을 부여한 게 핵심이다.

또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복

무기분법안’도 있다.

이 법안은 사적 제재와 병 상호 간 명령의 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장병의 고충처리·전문상담관 운용 등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군을 위협한 업무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군인사법’ 개

정안도 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이 최근 ▲군사법원 조직법률안 ▲군 검찰 조직 법률안 ▲군형사 소송법안 ▲장병의 군사재판 참여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 형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행보’ 보도

검찰,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석 요구

일본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행보불명 기사와 관련,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가토 타츠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에 가토 지국장의 출국금지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답변 내용과 조선일보 칼럼, 증권가 정보지 내용 등을 인용해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불명이 됐다’며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보도 뒤 청와대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에 엄중 항의하고, 주일 한국대사관은 도쿄 본사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사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산케이신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jkpark@연합뉴스

정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자 **서상덕** (전 교육연구관) 석사

- 필사본
- 정가 : **32,000원** (택배비 포함)
- 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 불법 복제를 금함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기)	광주교육대학교(10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4. 9. 5.(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4. 9. 5.(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4. 9. 6.(토)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특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4. 9. 1.(월) 14:10 (초급반) ·월 목 야간반: 2014. 9. 1.(월) 19:00 (중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4. 9. 4.(목) 09:10 (고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예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원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목 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 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원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목 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망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찰서면과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발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총도리별 장학금 소파기 500기 / 2,400만원 / 100대

다문화 가정 지원 독거노인 소파기 100대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9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연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사업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